

#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비교 고찰\*

조선희\*\*  
gounder@lycos.co.kr

박옥련\*\*\*  
ylpark@ks.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2 에도시대                    |
| 2. 사회·문화적 배경         | 4.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비교 고찰 |
| 2.1 조선후기             | 4.1 한·일 기녀복식의 형태 특성         |
| 2.2 에도시대             | 4.2 한·일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         |
| 3.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 4.3 한·일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 특성    |
| 3.1 조선후기             | 5. 결론                       |

主 題 語: 근세(Modern ages), 기녀복식(Costume of Ginyeo), 조형 특성(Formative characteristic), 형태(Shape), 색채(Color), 소재 및 문양(Fabric and Pattern)

## 1. 서론

조선후기(1599~1900)와 에도시대(1603~1868)는 근세사회로서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한 시기다.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은 신분제의 붕괴와 사치풍조, 유흥문화 확산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복식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조선에서 기녀(妓女)란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직업여성으로서 각종 연회에서 노래와 춤으로 상류층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기녀는 시(詩), 서(書), 화(畫) 및 예절과 가무를 습득했으며 습득 정도에 따라 궁중진연(宮中進宴)에 참여 할 수 있는 선상기(選上妓)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신접대와 변방 군사들의 위안기(慰安妓)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기(官妓)인 경기(京妓)와 지방기(地方妓), 사가(私家)에 거주하는 가기(家妓), 기업(妓業)을 행하던 사기(私妓)가 존재하였다.

\* 본 연구는 2014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교신저자

일본의 기녀인 유녀(遊女)와 게이샤(藝者)는 유곽(遊廓)에서 종사하는 하위계층의 직업여성이다. 유녀는 시, 서, 화, 무(舞), 바둑 등 교양과 예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랐으며, 게이샤는 소수의 고급유녀인 타유(太夫)와 오이란(花魁)을 대신하여 매춘을 하지 않는 전문예능인이었다. 이와 같은 유곽 내의 기녀들 외에도 사창가 기녀, 공중목욕탕의 유녀(蕩女), 가장 수준 낮은 기녀인 요타카(夜鷹) 등이 존재하였다.

양국의 기녀는 당시대를 대표할만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그들의 복식은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에게 유행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대 패션리더였던 기녀복식의 조형특성을 살펴보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크게 부풀린 엷은머리형태, 몸에 꼭 맞도록 단소화된 저고리와 속옷을 겹겹이 입어 풍성하게 부풀린 치마가 이루는 과장과 축소의 굴곡적인 조형성이 나타났다. 이는 굴곡의 실루엣에서 오는 리듬감과 기녀의 움직임에서 오는 율동미가 극대화되었으며, 가는 허리와 풍만한 둔부의 여성몸매를 은근히 드러내어 관능적인 느낌을 더 하였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왜소한 체형의 기녀가 고소테를 중첩하여 착용함으로써 실제체형보다 과장된 일자형태의 실루엣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녀는 고소테 깃을 뒤로 넘겨 착용하여 흰 목덜미를 드러내어 관능적인 느낌을 극대화하였다. 색채는 원색을 중심으로 회색이나 차색이 가미된 간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습식(襲式)형태의 의복에 습색(襲色)의 다양한 배색미가 나타난다.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하여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고소테의 모습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근세는 현대 전통복식을 이루는 조형성의 기저가 형성된 시기다. 이전부터 인접국가로서 영향을 받아온 한·일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문화·경제의 흐름에 따라 복식사에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였음에 주목하여 비교 고찰해 보았다. 그 중 기녀복식은 당시대 상류계층과 서민계층 여성에게 유행하여 여성복식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기녀복식을 대상으로 한 조형 특성 연구에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후기와 에도시대의 기녀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비교 고찰하여 양국의 사회배경과 복식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선행연구로는 조선후기 풍속화와 에도시대의 우키요에에 나타난 여인상과 여자복식에 대한 연구들<sup>1)</sup>로 김월계(2013), 김보아(2010), 정병모(1999)가 있다. 이는 풍속화에 나타난 여인상을 분류, 특징을 연구하고 복식을 연구한 것으로 기녀복식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다. 또한 『호색일대남』에 나타나는 여성상 비교에 관한 연구<sup>2)</sup>로 채민정(2013), 이유진(2007), 정미

1) 김월계(2013) 「풍속화와 우키요에에 나타난 여자복식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2권  
 김보아(2010) 「혜원신운복과 도리이 기요나가의 여인상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병모(1999) 「조선후기 풍속화와 에도시대 우키요에의 비교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8권  
 2) 채민정(2013)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고찰 : 동시대 조선조 소설구운몽(九雲夢)과의 비교를 통해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진(2007)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혜(2003)와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sup>3)</sup>로 최재우(2011), 김문자(2006), 유혜경(2002)은 다양한 신분 여성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여 정리한 것으로 기녀복식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의 복식에 관한 연구들<sup>4)</sup>은 윤혜성(2009), 최선은(2002) 등으로 조형성과 미의식 등을 비교 연구하였으나 이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기녀복식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형태, 색채, 소재 및 문양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기녀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복식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방법으로 조선후기의 풍속화 중 기방풍속 및 기녀의 모습을 다룬 그림과 기녀복식의 묘사가 돋보이는 『완판 열녀춘향수절가(完板 烈女春香守節歌)』를 참고하였다. 에도시대는 미인화를 중심으로 유곽의 생활과 기녀복식 묘사, 자태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을 택해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풍속화와 일본의 우키요에는 수적으로 차이가 난다. 우키요에는 판본으로써 대량생산이 가능한 반면 조선시대 풍속화는 화가가 직접 그림으로써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풍속화 또한 에도시대 우키요에와 같이 당시대 기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기녀복식의 조형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생각된다.

## 2. 사회·문화적 배경

### 2.1 조선시대

조선후기는 임진왜란(1592~1598) 이후로 사회 전역이 급속하게 변화된 시기이다. 농업기술과 산업발달로 경제력이 상승했으며 시장의 발달로 상업자본주의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미혜(2003)「호색일대남에 나타난 유녀 고찰」『한일어문논집』Vol.7

3) 최재우(2011)「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 간의 특성 차이 :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Vol.33

김문자(2006)「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여자 복식 고증 연구」『한복문화학회』제9권

유혜경(2002)「춘향전에 수록된 춘향의 외양묘사를 통해 본 조선후기 이상적 여인상 연구 : 만화본, 경판본, 남원고사, 완판본의 비교를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윤혜성(2009)「한국과 일본 기본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 : 17-19C 여자복식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선은(2002)「조선후기와 에도시대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성 비교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를 축적한 농민과 상인, 몰락한 양반이 생겨나면서 계급간의 신분이동 현상이 야기된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부유한 서민층은 시·서·화·음악 등 모든 예술 분야에서 서민적 향취가 담긴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들은 유흥의 새로운 소비자로서 각종 유흥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주점, 음식점, 색주가(色酒家), 기방 등도 번창하였다. 유흥문화의 발전은 기녀계층의 확산을 초래했다. 기녀계층의 확산은 기녀복식문화의 발달로 이어졌고 값비싼 소재와 독특한 창작방법으로 화려해진 기녀들의 복식은 다른 계층의 여성들에게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기녀복식의 유행은 사치풍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치풍조, 유흥문화 확산 등의 사회현상이 문제시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실 개혁적인 실학사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실학사상은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봉건적 사회체제가 해체되면서 억압되었던 인간의 주체적 인식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선후기 문학은 서민계층의 생활상과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상류계층의 비리와 부조리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서민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녀에게 망신을 당하는 상류계층의 모습이나 기녀를 향한 호색적인 상류계층을 조롱하는 내용의 문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천민이면서 상류계층의 남성을 접대하는 기녀의 신분적 특성과 당시 약자인 여성들의 주체적인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녀복식의 유행을 이끈 데는 풍속화의 역할이 컸다. 조선후기 풍속화의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반가부녀자들은 접하기 어려운 기녀의 모습을 접하게 된다.<sup>5)</sup> 집안에서 자유가 차단된 반가부녀자에게 자신과 다른 자유분방한 기녀복식은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기녀들의 복식은 반가부녀자들이 서서히 모방하게 되었으며, 일반여성에게도 유행되어 확산되었다.

## 2.2 에도시대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게이쵸(慶長)8년(1603) 에도(江戶)에 막부(幕府)를 개설한 봉건시대로 큰 전란이 없었던 태평한 시대였다.

에도시대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으로 구성된 신분제사회였다. 화폐경제와 도시의 발달로 인해 초닌(町人)의 상업 활동이 왕성해지고, 막부체제의 모순이 심각해져 정국과 국론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력을 가진 초닌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상인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sup>6)</sup>

경제적 번영과 태평성대의 사회분위기는 서민들이 향락적이며 찰나적인 유희문화를 조성

5) 김혜영(1997)「기녀복식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여성 복식의 연구」『배재대학교논문집』2권, p.432

6) 北村哲郎 저·이자연 역(1999)『일본복식사』경춘사, p.118

하게 하였다.

우리문화의 중요한 무대인 유곽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과는 다른 일종의 이계(異界)로 인식되어졌다. 유곽은 격리된 공간으로 물이나 높은 담 등으로 막혀 있는 폐쇄적인 장소였다. 이러한 유곽을 일반인들은 현실과는 다른 유토피아라 생각했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녀, 특히 고급유녀인 타유(太夫)나 오이란(花戀)은 선녀로까지 인식되어졌다.<sup>7)</sup> 기녀는 이러한 유곽 안에서 기업(妓業)활동을 하는 상업적 집단으로 성(性)뿐만 아니라 각종 교양과 예능을 닦아 손님을 접대하였다. 기녀들의 이런 상업적 집단이라는 성질 때문에 유곽 내부는 권력과 계급이 아닌 경제력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이었다. 주된 손님이 에도초기의 무사계급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부를 축적한 초년 계층으로 변화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경제력 있는 손님이 주를 이룸에 따라 기녀들의 복식도 점차 화려하게 변화되어갔다.

우리문화의 발전은 출판업계에도 영향을 주어 급격히 발전하게 된다. 귀족 중심이던 이전과는 달리 서민에 의해서도 창작되고 향유되는 문학이 발생했다. 특히 우키요조시 같은 통속적이고 현실적이며 쾌락적인 문학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현세(現世)의 호색(好色)을 즐기거나 남녀의 애정, 부자가 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키요에는 목판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특히 우키요에에 표현된 미인화는 주로 기녀, 통속소설의 여주인공, 가부키의 여배우로 그들이 착용한 고소데는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많은 여성들이 우키요에에 표현된 고소데와 비슷하게 제작된 고소데를 착용하여 유행<sup>8)</sup>할 정도였다.

### 3.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 3.1 조선후기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 3.1.1 형태 특성

조선후기 기녀복식의 형태적 특성은 품이 꼭 맞고 길이는 짧아진 단소화된 저고리, 대조적으로 길고 풍성해진 치마로 꼽을 수 있다.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았으며 소매폭은 팔을 꿰기 힘들 정도로 좁아 벗을 때 소매를 찌야할 정도였다.<sup>9)</sup> 당대의 실학자가 개탄할 정도로 단소화된 저고리 형태는 기녀를 중심으로 시작되

7) 이세영(2012)「에도시대 유녀도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8) 양지나(2010)「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8

어 반가부녀자들에게 번져가고, 후기로 갈수록 상하·귀전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행했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길어진 치마는 발이 보이지 않게 그대로 늘어뜨려 입거나 치맛자락을 앞으로 저고리 도련 위까지 치켜 올려 입고 띠를 매는 ‘거들치마’ 방법으로 입었으며 치맛자락을 저고리 도련 위까지 에후리쳐 여며 입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가체를 없어 크게 부풀린 머리형태, 가는 상체, 풍성한 치마를 통한 과장과 축소의 리듬감과 굴곡으로, 여체의 관능미가 두드러지는 형태특성이라 할 수 있다. ‘거들치마’는 은폐되어야 하는 속옷을 노출시키는 과격적인 착장법(着裝法)으로 과격미와 관능미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풍성하여 여유가 많은 치마형태와 고름의 활날림과 같은 비정형성의 울동감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기녀복식 형태의 관능미, 리듬감, 과격미, 울동감에 매료된 남성들이 기녀복식을 처첩에게 권하면서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그림 1> 미인도



<그림 2> 전모를 쓴 여인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한국의 풍속화, p.337

풍속화에 나타나는 기녀의 복식은 <그림 1>에서 살펴보면 기녀는 풍성한 머리채와 대조를 가녀린 상체와 크게 부풀린 치마로 여체의 굴곡적 형태를 의복으로 드러내 남성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또한 홍색 안고름을 사용해 가슴부근으로 시선을 모으는 효과를 주었다. <그림 2>의 기녀는 엷은머리 위에 기녀 전용쓰개라 할 수 있는 가리마와 전모를 착용하였다. 가녀린 상체에는 꼭 맞는 반희장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허리끈을 이용하여 거들치마 방법으로 치마를 착장하고 있다. 은폐되어야 할 속옷이 노출됨으로써 과격적인 관능미가 나타나며 착장자의 움직임에 의해 치맛자락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기녀의 관능적인 자태와 걸음걸이의 울동감이 느껴진다.

풍속화와 더불어 기녀복식의 형태적 특성에서 오는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비단 치마를 두른 허리는 힘없이 드리운 가는 버들같이 아름답다... 좋은

9) 李德懋『靑莊館全書』卷30, 士小節 婦儀一 服飾

비단 초록 장옷, 남색 명주 홀치마...흰 비단 새 속옷 턱밑에 훨씬 추켜올리고..세류(細柳) 같은 예쁜 몸을 단정히 놀리는데..10)' 이와 같이 기는허리를 강조하여 겹겹이 입은 흰 속옷으로 부풀린 남색 홀 명주치마를 입고 세류같이 가늘고 연약한 예쁜 몸을 흐늘거리며 아장 걸어가는 자태는 남성들에게 여성미와 함께 보호본능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흰 속옷을 턱밑까지 추켜올려 섬섬옥수 두 손으로 그네를 뛰는 모습은 은폐시켜야 하는 속옷의 노출로 관능미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는 기녀들이 추구하는 관능미와 여성미를 동시에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3.1.2 색채 특성

조선후기 기녀복식의 색채특성은 음양오행설에 의한 원색의 사용과 자연색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녀는 복색에 있어서 남성들의 눈에 띄고자 했으므로 원색의 대비나 원색의 장식구 등으로 강조점을 두어 더욱 돋보이고자 했다.



<그림 3> 단오풍정

출처: 조선풍속사 3, p.86

<그림 3>은 혜원 신윤복의 단오풍정으로 기녀들이 그네를 타고 목욕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다. 붉은색 치마와 장색으로 장식된 노란삼희장저고리를 착용하여 원색대비의 화사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자체로는 검은 머리채, 노란삼희장저고리, 붉은 치마와 입술, 백색의 속옷과 피부. 푸른 녹음으로 오방색을 완성하고 있으며 오방색의 배색으로 인해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더한다. 또한 그림의 가운데에 자리하여 가장 눈에 띄는 기녀복색이다.

10) 송성욱 옮김(2004) 『춘향전』 민음사, pp.22-23 원문은 설성경 역주(1995) 『한국고전문학 전집 12 춘향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pp.30-32  
 ‘나운을 들운허리 미양의 간는 버들 심이 업시 띄운 듯, 아름답고...슈화 유문 초록 장옷 남방사 훑단 초미...빅방사 진술 속것 턱 미턱 훨씬 추고...세류갓튼 고희 몸을 단정이 논이난디...’



<그림 4> 월야선유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은 뱃놀이에 참석한 기녀들을 묘사한 그림이다. 기녀복식 형태가 자세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지만 엷은머리에 차액(遮額)을 쓰고 삼회장저고리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기녀들이 붉은색 치마, 푸른색 치마, 옥색 치마를 주로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푸른색 치마를 착용한 기녀들은 주로 흰색의 삼회장저고리를 착용하였다. 이는 <그림 3>에서도 나타난 배색으로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는 상극의 배색으로 청아한 맑은 느낌을 주어 많이 착용되어진 듯 보인다. 옥색 치마는 소색(素色)이나 엷은 분홍과 같이 엷은 색상의 저고리와 함께 착용되어 맑고 소박한 배색미가 나타난다. 여기에 짙은 자주색 회장으로 장식되어 은은한 색채에 강조점이 나타난다. 붉은 치마를 착용한 기녀들은 노란색, 초록색 등 원색대비를 이루는 색상의 저고리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붉은색은 음을 뜻하며 여성을 뜻하는 색상으로 악귀를 막는 벽사의 의미도 가졌다. 붉은색과 함께 상생의 배색인 노란색과 푸른색은 따뜻하고 화려한 색상대비로 나타나 많은 기녀들이 선호한 배색으로 생각된다. 은은한 색상의 의복에는 원색의 술과 보석으로 장식된 노리개와 같은 장신구를 패용하거나 홍색의 안고름을 사용하여 가슴과 허리부근으로 시선을 모았다.

이러한 원색을 사용한 색채 특성은 문학작품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춘향전』에 나오는 기녀복식의 색채 묘사 중 붉은색 치마와 입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오고갈 제 살피보니 녹음 속의 홍상자락이 바람결의 너빋치니...11)’와 ‘녹의홍상 괴싱들은 빅수나삼 뉘피 드러 춤을 추고.12)’은 그네를 뛰는 춘향의 붉은 치맛자락이 녹색 숲과 어우러져 펼쳐이는 모습과 녹색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기녀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다. 이 외에도 붉은 옷, 붉은 치마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녀들이 화려한 붉은 치마를 선호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1) 설성경 역주(1995)『한국고전문학 전집 12 춘향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32

12) 설성경 역주(1995), 위의 책 p.202



또한 흰색은 피부표현에 많이 나타난다. 앞서 풍속화에서 보듯이 기녀의 분대화장은 검은 머리채, 반달 같은 눈썹, 붉은 입술, 흰 피부를 강조한 화장이다. 이는 당시대 남성들이 하얀 피부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기녀들은 남성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흑운(黑雲)같은 머리를 크게 부풀려 하얀 얼굴과 대비를 주어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한 듯하다. 이와 같은 흰 피부의 선호는 『춘향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설부화용(雪膚花容)이 남방(南方)의 유명키로... 13)’, ‘박속 갖탄 네 살거리... 14)’라는 표현을 통해 흰 피부를 가진 꽃다운 얼굴이란 묘사와 ‘박속같은 네 살결이’라는 표현을 통해 흰 피부가 당시 미인의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1.3 조선시대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 특성

조선후기 기녀복식의 소재는 풍속화를 통해서만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없었으나 『춘향전』에 나오는 비단 저고리, 명주 치마, 흰 모시 적삼, 비단 꽃신 등의 표현을 통해 모시를 이용한 은근한 노출로 관능미를 드러냈으며 비단과 명주 등 값비싼 소재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부를 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얇고 부드러운 직물을 사용하여 주름을 풍성하게 연출하였다. 면과 마로 만든 속옷에 풀을 먹여 뻣뻣하게 힘을 주어 몸에 붙지 않고 풍성한 속옷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는 하후상박의 실루엣에 적합한 소재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녀복식의 문양 특성은 풍속화를 통해 두드러진 문양보다는 지문(地紋)이 놓인 의복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의 기녀는 둥근 문양이 지문으로 새겨진 두록색 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좁고 짧은 저고리로 인해 가리개용 허리띠를 착용하여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미인도

출처: 한국의 풍속화, p.347

13) 설성경 역주(1995), 위의 책, p.34

14) 설성경 역주(1995), 위의 책, p.38

소재와 함께 풍속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기녀복식의 문양에 대한 구절이 나타난다.

난(蘭)이며 봉(鳳)을 새긴 비단 치마를 섬섬옥수로 잡아 걸쳐 맵시 있게 비켜섰다.<sup>15)</sup>  
 명옥이가 드려오난디 기하상(菱荷裳 마름과 연꽃 무늬의 치마) 고흔 티도 이항이 진중한디 아장거  
 러 가만가만 드러올 오더니...<sup>16)</sup>

춘향이 난과 봉을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한 비단 치마를 입은 모습과 명옥이 마름모와 연꽃 문양의 치마를 입었다는 구절이 나타난다. 풍속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점으로 소설 속의 묘사를 통해 당시 기녀는 수나 그림을 통해 치마를 화려하게 장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절개를 뜻하는 난, 귀한 봉, 불교의 상징성을 지닌 연꽃과 같이 상징성을 지닌 문양으로 복식을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 3.2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 3.2.1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형태 특성

에도시대의 고소데(小袖)는 길이가 긴 한 장으로 된 형식으로 17세기 중반까지 점차 품이 좁아지고 소매의 폭이 약간 넓어지며 길이가 길어지는 등의 변화를 거쳐서 17세기 말 무렵의 고소데는 더욱 길고 품이 작은 형태로 완성되었다.<sup>17)</sup>

기녀의 고소데는 일반여성들과 같은 형태지만, 깃을 뒤로 많이 넘겨 목선의 뒤태가 드러나게 착용하여 고소데 자락이 끌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머리장신구를 이용하여 크게 부풀린 머리채와 대조적으로 가늘고 긴 하얀 목선을 드러냄으로써 관능적인 기녀의 매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 고소데의 종류는 게이초고소데(慶長小袖), 간분고소데(寛文小袖), 겐로쿠고소데(元禄小袖)등이 있다. 이는 문양 특징과 시기로 나누어진다. 초기 품이 넓은 게이초고소데부터 가녀린 여성미를 드러내는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나는 겐로쿠고소데까지 점차적으로 품이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15) 송성옥 옮김(2004), 앞의 책, p.192

16)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125

17) 윤혜성(2009)「한국과 일본 기본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17-19C 여자복식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8



<그림 6> 湯女図



<그림 7> 寛文美人



<그림 8> 三浦屋小紫

출처: 染織シリーズ4日本服飾小辭典, p.47, 小袖, p.44, p.74

<그림 6>의 기녀는 게이초고소데를 착용하였으며 오비는 좁고 허리아래 쪽에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품의 여유가 있고 넉넉한 일자형 형태로 착용하였으며 기녀들의 머리형태는 초기의 늘어뜨린 형태로 여성스러움이 느껴진다. <그림 7>의 기녀는 전면을 약동감이 넘치는 대담한 문양으로 구성된 인상적인 간분고소데를 착용했다. 이전 시기보다 품이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졌으며 오비에도 문양을 넣어 화려함을 더했다. 머리형태는 효고마게가 나타난다. <그림 8>의 기녀는 원색 위주에 다양한 문양을 넣어 화려하게 장식된 겐로쿠고소데를 착용했다. 또한 오비가 넓고 길어져 화려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쓰야마형의 머리형태로 뒷목을 노출한 기녀 특유의 착장방법이 돋보인다.

오비(帶)는 의복을 여미기 위한 실용품이었는데, 장식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폭이 넓고 길어졌다. 또한 값비싼 원단과 화려한 문양을 배치하여 사용하였다. 에도초기 허리선 부근에 착용하던 것이 가슴선 아래로 올라갔는데, 이는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게 연출하여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일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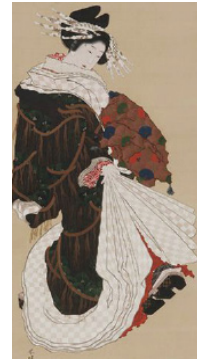
에도시대 유곽문화를 상세히 표현한 『호색일대담』에서 최고의 기녀라 서술하고 있는 ‘유기리(夕霧)’의 외모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게다가 다리에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손가락은 가늘고 몸은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몸매...피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뽀얗다.’<sup>18)</sup> 이는 당시 남성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기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흰 살결,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몸매, 특히 흠 없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 상하 분리가 없는 고소데를 중첩하여 여미는 형태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매끈한 다리를 노출하는

18)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호색일대담』현실과 미래, p.200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 校注(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180  
 「姿をみるまでもなし, 髪を結ふまでもなし, 地顔素足の尋常, はづれいゆたかにほそく, なり恰好しとやかに, ししのつて, 眼ざしぬからず, 物ごしよく, はだへ雪をあらそひ, 床上手にして名譽の好にて, 命をと所あつて,」

데 이는 남성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흰 목덜미였다..19)’는 구절을 통해 기녀가 고소테의 깃을 뒤로 넘겨 착용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가늘고 흰 목덜미는 남성들에게 가녀리고 관능적인 기녀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3.2.2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은 원색의 화려한 색채와 간색을 사용한 세련된 배색의 미로 나타난다. 또한 계절에 어울리는 배색과 문양 등이 발달하여 고소테 자체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그림 9> 振袖美人図    <그림 10> 青樓店頭図    <그림 11> 年始まわりの遊女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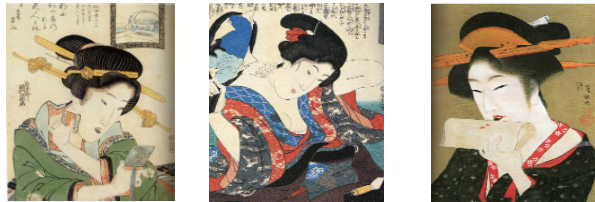
출처: 美を極めた染めと織り小袖からきものへ, p.96, 우키요에의 美, p.277, Freer Gallery of Art

<그림 9>는 차분한 붉은색의 고소테에 국화로 장식하여 가을의 이미지를 표현한 듯하다. 검은 올림머리,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는 붉은 고소테는 노란색과 푸른색 국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톤이 차분한 푸른색 오비가 더해져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그림 10>은 오이란(花魁)의 붉은 고소테와 푸른색 우치카케의 대비가 화려하다. 화려한 겉옷과 달리 속옷은 간색을 이용하여 세련된 색채배합의 미가 나타난다. 차야(茶屋)의 주인으로 보이는 기녀는 나무색과 회색빛이 도는 보라색의 고소테를 중첩하여 차분하고 고상한 색채미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에도시대 기녀들은 원색과 간색의 색채배합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단순한 형태의 고소테를 화려하고 세련되게 착용하였을 것이다. <그림 11>은 검은색 우치카케

19) 이하라 사이키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위의 책, p.148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 校注 (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131 「まづは首すぢの白き事, まづは首すぢの白き事」

를 착용한 오이란의 모습이다. 우치카케는 검은색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검은색 바탕의 우치카케에 장식한 문양이 더욱 돋보일 것이고 검은 입술화장(笹色紅), 치후과 같이 검은색의 선호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흰색은 피부표현에서 많이 나타난다. 풍성한 검은머리와 새하얀 피부, 붉은 입술과 같은 에도시대 기녀의 화장은 조선시대 기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화장을 하는 기녀

출처: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p.301, p.303

<그림 12>는 흰 피부를 위해 화장하는 기녀의 모습이다. 길으로 드러내는 목덜미를 정성들여 화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입술연지는 붉은색을 칠하던 것이 점차 더 짙어져 검은색을 칠하기도 하였다. 치후 역시 치아를 검게 염색하는 것으로 검은색을 선호하는 에도시대 기녀들의 미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원색과 간색, 계절에 따른 색상 등은 『호색일대남』에 잘 묘사되어 있다. ‘봄내음이 가득한 하늘색 속옷을 입고 길에는 단자(緞子) 옷에 오색 아플리케를 입었는데..20)와 ‘늦봄에 어울리는 등나무색 기모노를 입고 갈색 수자(縹子)21)의 넓은 띠를 멋들어지게 가위자로 묶고..22)를 통해 계절에 따라 색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봄에 어울리는 하늘색 속옷뿐 아니라 늦봄 등나무색상과 갈색 오비의 유사색상 배색의 아름다움도 표현하였다.

20)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위의 책, p.211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 校注 (1992)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 新潮社, p.192

「春めきて空色の御はだつき, 中にはかば縹子にこぼれ梅のちらし, 上は緋緞子に五色のきり付け, 羽根・羽子板・破魔弓玉ひかりをかざり, かたには生連繩・ゆづり葉・おもひ葉敷をつくし, 紫の羽織に紅の締紐を結びさげ, 立ち木の白梅に名をなく鳥をとませ, むきあしのぬめり道中, 見てなほ恋をもとむる。」

21) 공단, 새틴

22)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42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 校注 (1992)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 新潮社, p.39

「色付けの薑に塗竹箸を取りそへ, をりふし春ふかく, 藤色のりきん縞に, わけしりだてなる茶じゆすの幅広, はさみ結びにして, 朝鮮さやの二の物をほのかに, のべ紙に数歯枝をみせ懸け,」

### 3.2.3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 특성

『호색일대남』에 표현된 소재는 비단, 수자, 단자, 외국직물 등으로 다양하며 당시 유행하였던 고가의 소재들이다. 기녀들은 값비싼 소재의 고소테를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해 부의 과시와 미적 감각을 드러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하학문양, 식물문양, 동물문양, 생활용품문양 등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13> 龜戸天神



<그림 14> 二美人図



<그림 15> 摘み草図

출처: MOA美術館所藏 浮世繪版畫名品展, p.32, きものの美, p.9, 日本の染織 4, p.86

기녀의 고소테에 나타나는 문양은 밑단부터 앞단과 깃에 걸쳐 비스듬히 문양을 배치한 에도처(江戸處)문양<그림13>, 밑단 주위에만 모양을 표현하는 거문양(裾模様)<그림14>이 있다. 고소테의 밑단(裾)과 앞단(袴)의 안쪽에 문양을 배치하는 것을 리문양(裏模様)<그림15>이라한다<sup>23)</sup>. 이와 같이 고소테의 일부분에 문양을 배치하고 안쪽에 화려한 색상의 안감과 ‘리문양’을 배치하여 간색인 걸감과의 대비를 통한 화려한 조화를 이뤄낸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기녀를 상징하는 문양이 존재 했다. 이는 『호색일대남』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자기 주변의 가무로도 한 쌍으로 옷을 입히고 자신의 중개인이나 하인마저도 단풍 문장을 붙이게 하여...<sup>24)</sup>’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어디서든 자신을 어필하고자 하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윤혜성(2009), 앞의 논문, p.67

24) 이하라 사이키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242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 校注 (1992)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225

「近付きにも言葉を懸けず、禿も対の着物、二人引きつれ、やり手六尺までも御紋の紅葉...」

## 4.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비교 연구

### 4.1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형태 특성 비교

조선후기 기녀복식과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형태 특성 비교를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형태 특성 비교

풍속화	조선후기	에도시대
		
형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크게 부풀려진 없은머리와 작고 둥근 얼굴, 가는 상체와 풍만한 하체로 대비를 이룸</li> <li>• 간소화된 저고리, 풍성한 치마로 이루어진 향아리형 실루엣</li> <li>• 속옷을 겹겹이 착용</li> <li>• 가리개용 허리끈과 거들치마로 치마끈이 생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테를 다양한 색상으로 중첩하고 오비를 묶어 장식함으로 일자형 실루엣을 완성함</li> <li>• 실용적인 오비가 넓고 길어지며 위치도 가슴선 아래로 올라감</li> <li>• 오비를 고정하는 시고키</li> <li>• 깃을 뒤로 젖혀서 목의 뒤태를 노출 시켜 관능미 연출</li> </ul>
비교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다란 머리채와 가는 목선, 가녀린 상체와 풍성한 하체가 대비되는 하후상박의 실루엣으로 여성신체의 미를 극대화</li> <li>• 은폐되었던 가는 허리와 속옷의 노출을 이용한 관능미</li> <li>• 과장된 굴곡에서 오는 리듬감과 기녀의 움직임에 따른 율동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풀린 머리형태와 일자형 실루엣은 상·하체의 비율과 함께 가녀린 여성미로 나타남</li> <li>• 길어 흐늘거리는 아랫단의 주름과 넓어진 소매폭, 오비의 과장</li> <li>• 머리장신구를 사용하여 크게 부풀린 머리채와 노출된 가는 뒷목선의 관능적 여성미</li> <li>• 기녀의 움직임에 따른 다리의 노출로 관능미를 더 함</li> </ul>

<표 1>을 통해 조선후기 기녀복식과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형태 특성의 유사점은 조형적으로 과장해 부풀린 형태와 길게 끌리는 형태이다.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없은머리와 치마를



부풀려 굴곡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가체를 없어 크게 부풀린 머리형태와 꼭 맞게 착용하여 기녀린 상체, 속옷을 겹겹이 입어 풍성한 치마, 작은 발은 과장과 축소에 의한 굴곡적인 리듬감을 보여준다. 몸에 꼭 맞는 정형성을 가지지 않고 여유가 많은 치마폭에 의해 기녀의 움직임에 의해 따른 치마 주름과 자락의 움직임, 훔날리는 고름은 조선시대 기녀복식 특유의 율동미를 나타낸다. 에도시대 기녀복식 역시 길어진 고소테 자락의 끌림과 기녀의 움직임에 따른 고소테 자락의 훔날림이 율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소매와 오비가 과장되어 폭이 넓어지는데, 넓어진 소매는 부의 과시로 보여 진다. 오비는 크고 넓어질수록 착용부위도 가슴 아래까지 올라가 하체가 길어 보이는 에도시대 특유의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 기녀복식에는 노출에 의한 관능미가 나타난다. 조선후기 기녀는 감추어져있던 기는허리와 속옷을 드러냄으로써 남성의 성적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에도시대 기녀는 무엇보다 눈이 가는 흰 목덜미와 고소테 사이로 드러나는 매끈한 다리를 노출함으로써 남성의 시선을 모았을 것이다.

양국 기녀복식의 형태 특성의 차이점으로는 조선시대 기녀복식은 항아리형 실루엣으로 당시 풍만한 둔부는 미인의 조건이자 출산을 위한 것으로 기는허리와 함께 강조되어 나타났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상하분리 없는 고소테를 중첩하여 전체적으로 넉넉한 일자형 실루엣이다. 당시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은 몸매를 아름답다고 찬사한 것을 보아 일자형 실루엣은 아름다운 조형적 형태라 여겨졌을 것이다.

#### 4.2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 비교

조선후기 기녀복식과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 비교를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 비교

	조선후기	에도시대
풍속화		



<p>색채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붉은색 치마는 노란색, 초록색과 같은 원색 저고리와 배색</li> <li>• 푸른색 치마는 흰색 저고리와 배색된 경우가 많이 나타남</li> <li>• 회장에 짙은 색상을 사용하여 단순한 저고리에 생동감을 줌</li> <li>• 은은한 배색의 의복에 원색의 노리개와 홍색의 안고름을 사용</li> <li>• 분대화장으로 검은 눈썹, 붉은 입술, 흰 피부를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이용</li> <li>• 원색대비와 간색을 사용한 화려하고 세련된 배색미를 표현</li> <li>• 습식형태의 고소테에 습색의 다양한 배색미가 나타남.</li> <li>• 검은 눈썹표현, 붉은 입술, 이색(異色) 입술 등 다양한 연지사용, 흰 피부</li> <li>• 치아를 검게 하는 치후, 에도에서는 요시하라의 유녀만이 치후를 함</li> </ul>
<p>비교 고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붉은색의 사용은 눈에 띄는 배색효과와 함께 벽사의 의미를 가진 듯 함</li> <li>• 머리채부터 발끝까지 오방색의 배색이 나타남</li> <li>• 은은한 배색에는 짙은 색상으로 시선을 주목시킴</li> <li>• 분대화장의 흰 피부는 원색의 의복과 선명한 대비를 이뤘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계절에 맞는 색채의 사용과 문양을 사용</li> <li>• 원색의 대비는 흰 피부와 대비를 이루어 흰 뒷목선, 움직일 때 드러나는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함</li> <li>• 다양한 간색의 발달은 에도시대 특유의 배색미를 발달시킴</li> <li>• 검은 입술, 치후, 우치카케는 검은색을 선호하는 에도시대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li> </ul>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선후기 기녀복식과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의 유사점은 흰 피부를 돋보이게 하는 색상을 선호한 것이다. 조선후기 기녀복식에는 오방색의 원색과 은은한 자연색의 전통색상이 나타난다. 그 중 적(赤), 청(靑), 백(白), 황(黃), 흑(黑)의 오방색은 흰 피부, 검은 머리카락과 원색의 복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대화장을 한 기녀의 낮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화려하거나 청아한 느낌으로 나타났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초기에 원색을 통한 화려한 배색이 나타났으며 흰 피부와 대비되어 화사함을 더했다. 그러나 원색의 유행으로 인해 사치풍조가 만연해지자 원색의 사용을 금하게 됨으로써 점차 원색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양국 기녀복식의 색채 특성의 차이점으로 조선시대 기녀복식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치마를 자주 착용하였으며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붉은색 치마와 초록색, 노란색 저고리의 배색, 푸른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의 배색이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은은한 배색의 의복에 붉은 안고름과 원색의 노리개를 사용해 강조점을 주어 시선을 가슴부근으로 모으는 것으로 이는 강조색상을 유용하게 활용한 예가 된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간색을 사용한 다양한 색채배합이 나타난다. 초기 원색을 사용한 것에서 점차 다양한 간색을 사용하여 차분하며 멋을 부리지 않은 듯한 세련된 배색이 나타난다. 이는 습식형태의 고소테에 습색의 다양한 배색미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 기녀의복에는 나타나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검은색의 우치카케와 검은 입술화장, 치후은 검은색을 선호하는 에도시대 특유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4.3.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 특성 비교

조선후기 기녀복식과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 특성 비교를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 특성 비교

	조선후기	에도시대
풍속화		
소재 및 문양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단과 명주 등 값비싼 소재를 사함으로 써 부의 과시와 의복의 율동성을 더함</li> <li>• 은근한 비침이 있는 모시소재의 사용으로 관능미를 더함</li> <li>• 은은한 지문이 들어간 의복을 착용</li> <li>• 난, 봉, 마름모, 꽃과 같은 문양으로 치마를 장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단, 수자, 단자, 외국직물 등으로 다양 고가의 광택 있는 소재들이 애용</li> <li>• 기하학, 식물, 동물, 생활용품문양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남</li> <li>• 문양의 위치에 따라 처, 거, 리문양으로 나눌 만큼 문양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장식함</li> <li>• 기녀를 상징하는 문양이 존재하여 이를 일행의 의복에도 장식함</li> </ul>
비교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민임에도 값비싼 소재를 사용하여 의복착용 시 아름다운 자태를 더 함</li> <li>• 일반여성은 착용하기 힘든 고가의 소재와 장신구로 부의 과시와 멋을 더함</li> <li>• 문학작품을 통해 정조, 고귀, 벽사, 아름다운 상징성을 지닌 문양이 사용됨을 확인</li> <li>• 일반여인들은 의례용으로 착용하는 복식에 문양이 주로 이용되지 만 기녀의 경우는 복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한 듯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류계층 임에도 값비싼 소재를 사용하여 유행을 선동함</li> <li>• 조선과 달리 문양의 상징정보보다는 계절에 맞거나 복식에 주제를 정해 그것에 맞게 문양을 다양하게 사용함</li> <li>• 다양한 문양과 배치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고소테를 한 쪽의 그림과 같이 장식함</li> <li>• 세력이 집안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녀를 상징하는 문양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유곽 안에서 기녀의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됨</li> </ul>

<표 3>을 통해 조선후기 기녀복식과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소재특성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값비싼 소재를 사용하여 복식의 조형미를 돋보이게 한 것이다.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기녀복식 특유의 굴곡적이고 리드미컬한 울동미를 극대화 시켰을 것이다. 실크의 값비싼 소재는 아름다운 원색과 다양한 지문을 나타내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문양과 색상이 돋보일 수 있는 광택이 있는 직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길게 하늘거리며 끌리는 고소데 아랫단과 움직임에 의해 훑날리는 고소데 자락 표현을 위한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조선후기 기녀복식과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문양특성의 유사점은 문양을 사용하여 복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다. 문학작품을 통해 본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문양은 난, 봉, 연꽃, 미름모 등으로 장식해 착용하였으며 일반여인들은 의례용으로 문양을 사용하였지만 기녀들은 복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다양한 문양과 배치방법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고소데를 장식하여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고소데의 특징이 나타난다.

양국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특성의 차이점은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문양으로 장식함에 있어 정조, 고귀, 벽사, 아름다움의 상징성을 지닌 문양이 사용된 점이다. 의례용 복식이 아닌 에도 상징성을 지닌 문양으로 장식하여 길상(吉祥)을 비는 당시대 여인의 정서가 담겨있는 것이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조선후기 기녀와 달리 상징성을 지닌 문양보다는 당시 유행한 시를 주제로 하거나 계절에 맞는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여 복식을 장식했다.

## 5. 결론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기녀복식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형적 특성은,

첫째, 형태면에서 보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엷은머리와 부풀어진 치마의 과장된 형태와 밀착된 저고리의 축소에 의해 굴곡적인 리듬감을 나타낸다. 또한 풍성한 치마의 주름과 자락이 기녀의 움직임을 통해 기녀복식에 울동미를 부여한다. 에도시대 기녀복식도 기녀의 움직임에 따라 고소데 자락이 끌리며 훑날리는 울동적인 느낌을 가진다. 소매와 오비가 과장되어 폭이 넓어지는 것은 부의 과시와 장식의 효과로 생각된다. 오비는 크고 넓어질수록 가슴부위로 올라가 하체가 길어 보이는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기녀복식은

과장과 축소를 통한 형태의 변형과 넉넉하고 긴 복식형태에서 오는 율동미의 유사점을 가진다.

또한 노출에 의한 관능미의 연출이다. 조선후기 기녀는 감추어져있던 기는허리와 속옷을 노출함으로써, 에도시대 기녀는 흰 목덜미와 다리를 노출함으로써 남성의 시선을 모았을 것이다.

둘째, 색채의 조형성을 보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오방색의 원색과 자연색의 전통색상이 나타난다. 그 중 적, 청, 백, 황, 흑의 오방색은 흰 피부, 검은 머리카락과 원색의 복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대화장을 한 기녀의 낮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화려하거나 청아한 느낌으로 나타냈다. 또한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초기에 적, 황, 홍, 초록, 백 등의 원색을 사용하여 화려한 배색이 나타났으며 흰 피부와 대비되어 화사함을 더했다.

셋째, 소재면에서 보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기녀복식 특유의 율동미를 극대화 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실크와 같은 값비싼 소재는 화려한 원색과 다양한 지문을 나타내기엔 적합하였을 것이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광택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문양과 색상이 돋보이도록 했다. 또한 고소테 자락이 훑날리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양국 기녀복식은 값비싼 소재를 사용하여 복식의 조형미를 돋보이게 하였다.

넷째, 문양면에서 보면,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문양을 사용하여 복식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는 기녀복식을 더욱 아름답게 하여 남성들에게 선녀와 같이 보였을 것이다.

2) 한편,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기녀복식에 나타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면에서 보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항아리형 실루엣으로 하체에 속옷을 겹겹이 착용하여 하체를 크게 부풀린 점이다. 이는 풍만한 여성의 둔부를 복식으로 과장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상하분리 없는 고소테를 중첩하여 전체적으로 넉넉한 일자형 실루엣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둘째, 색채면에서 보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붉은색 치마와 초록색·노란색 저고리의 배색, 푸른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의 배색이 주로 나타난다. 또한 은은한 배색의 의복에 붉은 안고름과 원색의 노리개를 사용해 강조점을 줌으로 시선을 가슴부근으로 모았다. 반면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간색을 사용한 다양한 색채배합의 미를 보여준다. 원색사용을 금지하면서 회색, 차색이 가미된 다양한 간색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멋을 부리지 않은 듯한 세련된 배색미가 나타난다. 또한 조선후기 기녀의복에는 나타나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검은색의 우치카케와 검은 입술화장, 치후은 검은색을 선호하는 에도시대 특유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재 및 문양면에서 보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문양으로 장식함에 있어 정조, 고귀, 벽사, 아름다움의 상징성을 지닌 문양을 사용하였다. 상징성을 지닌 문양으로 장식하여 길상(吉祥)을 비는 당시대 여인의 정서를 담아낸 것이다. 반면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조선후기 기녀와 달리 상징성을 지닌 문양보다는 당시 유행한 시를 주제로 하거나 계절에 맞는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여 복식을 장식했다. 또한 문양의 배치도 다양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고소데를 멋스럽게 장식하였다.

양국의 기녀는 비슷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당시대 여성복식의 유행을 주도했다. 이와 같이 한·일간 복식문화 양상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태, 색채사용, 문양사용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기녀복식은 여체의 굴곡을 강조한 하후상박의 실루엣을 연출한 반면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고소데를 중첩한 일자형 실루엣을 연출했다. 또한 에도시대 기녀복식에 간색을 사용하고 다양한 문양이 표현된 것은 일본의 다양한 감성과 디테일한 표현을 보이는 문화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Iwao Nagasaki(2006)『Kosode The Origin of Modern Kimono Design』Pie books  
 北村哲郎(1988)『染織シリーズ4-日本服飾小辭典』源流社  
 久下司(1996)『化粧』法政大學出版局  
 稿本澄子(1985)『女は髪のためでたからむこう, 日本美術に描かれた女性たち』朝日出版社編  
 鈴木昌子(2001)『江戸時代の髪形-髪形の變遷にみられる日本人の美意識-』『山野研究紀要』  
 長崎 巖(1993)『日本の染織 4』東京書院  
 \_\_\_\_\_(2006)『小袖』pie book  
 丸山 伸彦(2007)『江戸のきものと衣生活』  
 村田孝子(2009)『江戸300年の女性美-化粧と髪型-』青幻社  
 四日市市立博物館 編(2002)『MOA美術館所藏 浮世繪版畫名品展』  
 강명관(2010)『조선풍속사 3-조선사람들 헤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푸른역사  
 고바야시 다다시 지음, 이세경 옮김(2004)『우키요에의 美』영신사  
 고현정(1999)「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라(2000)「조선후기 풍속화와 일본 에도시대 우키요에 비교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철(2013)「춘향전과 서상기의 인물 비교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순미(2007)「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삽화에 대한 고찰」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北村哲郎 著·이자연 역(1999)『일본복식사』경춘사  
 서주희, EBS화인 제작팀(2011)『풍속화』지식채널  
 설성경 역주(1995)『한국고전문학 전집 12 춘향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양지나(2010)「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혜경(2002)「춘향전에 수록된 춘향의 외양묘사를 통해 본 조선후기 이상적 여인상 연구: 만화본, 경판본,

- 남원고사, 완관본의 비교를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성(2009)「한국과 일본 기본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17-19C 여자복식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강선(2005)「조선시대후기 기생복식이 일반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풍속화를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능화 저 이규화 옮김(1992)『조선해어화사』동문각
- 이유진(2007)「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라 사이키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호색일대남』현실과 미래
- 이행화·박옥련(2010)「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일본근대학연구』29권,
- 정미혜(2003)「호색일대남에 나타난 유녀 고찰」『한일어문논집』Vol.7
- 정병모(2000)『한국의 풍속화』한길아트
- 井原西鶴 著 松田 修 校注(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 조규화(1998)『복식미학』세운문화사

---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

<要旨>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 비교 고찰

본 논문에서는 근세 한·일 기녀복식의 조형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형태면의 경우 양국 기녀복식은 과장과 축소를 통한 형태의 변형과 넉넉하고 긴 복식형태에서 오는 율동미라는 유사점을 가진다. 또한 노출에 의한 관능미의 연출이다. 반면 조선 후기 기녀복식은 항아리형 실루엣으로 풍만한 여성의 둔부를 복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했으며,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상하분리 없는 고소테를 중첩하여 전체적으로 적당히 넉넉한 일자형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색채의 유사점으로 조선 후기 기녀복식은 오방색의 원색과 은은한 자연색의 전통색상이 나타난다. 또한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초기에 원색을 사용하여 화려한 배색이 나타났으며 흰 피부와 대비되어 화사함을 더했다. 그러나 원색의 사용을 금하게 됨으로써 점차 원색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차이점으로 조선 후기 기녀복식은 은은한 배색의 의복에 붉은 안고름과 원색의 노리개를 사용해 강조점을 주어 시선을 가슴부근으로 모았으며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간색을 사용한 다양한 색채배합의 미로 나타난다. 또한 조선 후기 기녀의복에는 나타나지 않는 검은색을 선호한 것이다.

소재와 문양의 유사점으로 양국 기녀복식은 값비싼 소재를 사용하여 복식의 조형미를 돋보이게 하였으며 다양한 문양으로 복식을 장식하여 눈에 띄게 한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조선 후기 기녀복식은 상징성을 지닌 문양으로 장식하여 길상을 기원했다. 반면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당시 유행한 시를 주제로 하거나 계절에 맞는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여 복식을 장식했다. 또한 문양의 배치도 다양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고소테를 멋스럽게 장식하였다.

Comparitive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cent age costume of Korean gisaeng and Japanese geisha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cent age costume of Korean gisaeng and Japanese geisha, women trained as a professional singer, dancer, and companion for men.

Regarding the costume form, both Korean gisaeng and Japanese geisha had similarity in having rhythmic beauty coming from exaggerated (or reduced) ample and long costume. Both of them also produced voluptuous beauty by exposure. On the other hand, the costume of Korean gisaeng in late Joseon dynasty exaggerated the voluptuous hip of female by pot-like silhouette. Meanwhile, the costume of Japanese geisha had straight silhouette by overlapping kosode, which does not have separation of upper wear and lower wear.

Regarding color, the costume of late Joseon Korean gisaeng used five cardinal colors and traditional subdued natural colors. Meanwhile, the costume of Edo age Japanese geisha had luxurious coloration using prime colors while adding georgeousness by contrasting colors with white skin. However, as the use of prime color became banned, the use of prime colors decreased. Regarding the difference of Korea and Japan, the costume of late Joseon gisaeng attracted attention to bosom by emphasizing it using red inside-tab and prime color ornament matched with costume with subdued coloration. Meanwhile, the costume of Edo age Japanese geisha had the beauty of various color schemes using secondary colors. Japanese geisha also preferred black color, which was not used by Korean gisaeng.

Regarding material and pattern, the costume of both Korean gisaeng and Japanese geisha emphasized formative beauty by expensive material and had costume attract attention by decorating it with various patterns. The costume of Korean gisaeng wished good luck by decorating it with symbolic pattern. On the other hand, the costume of Japanese geisha took the theme of popular poetry or used various patterns. The costume of Japanese geisha also decorated relatively simple kosode with pattern arrangement.